

성신 강림 대축일

기도서 309 면

제1독서 : 사도 2, 1-11

제2독서 : 1고린 12, 3b-7, 12-13

복음 : 요한 20, 19-23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홍보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낮잠 자는 성령?

이 상 섭 신부



사도들의 으뜸인 겐장이 베드로! 예수님과 최후만찬 때는 감격한 나머지 “죽어도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한 그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그날밤에 접을 먹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나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자 겐장이었던 베드로는 수천명의 유대인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을 규탄하고,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으며 3천명의 세례자를 내었다. 어떻게 50일 전에 신변의 위험을 느껴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겐장이 베드로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사도들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힘이였다.

우리도 세례와 전진으로 성령을 증만히 받았다. 그러기에 우리는 바울로 사도의 말씀처럼 성령이 머무시는 궁전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힘이다. 그러나, 겐장이 사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성령은 오늘날 보이지 않는 것일까? 옛날에 활동하셨던 그 성령은 낮잠만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러기에 예수님의 뒤를 따르려고 말하고, 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성령의 도움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교만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성령의 활동보다는 악령의 활동이 더욱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그러기에 사랑 자체가신 하느님을 믿고 있다고 자처하면서도 서로 이간질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서로 불신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며,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에 인색하다. 또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풍부히 시간과 재물을 쓸 줄 알면서도,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 구두쇠 노릇을 하여 하느님 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의 것이 아니고 악령의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은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는가? 무조건 사도들처럼 성령이 우수수 떨어져서 변화되기만을 바라야겠는가? 아니다.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사도들이 10일간이나 함께 모여 기도하였듯이 우리도 최소한도의 준비를 해야 하겠다. 성령이 우리 안에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의 활동은 일어나는 것이다.

성령의 활동은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 이해할 줄 모르는 마음, 용서할 줄 모르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모두 불태워버리고 초대 교회의 사도처럼 서로 돕고, 이해하며, 불타는 사랑으로 전리를 전하고, 정의를 실천하며,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오늘의 사도가 될 것이다. 또한 하느님의 성령을 모셨기에 기쁨과 평화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주 본당 주임신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광주 어머니들을 기억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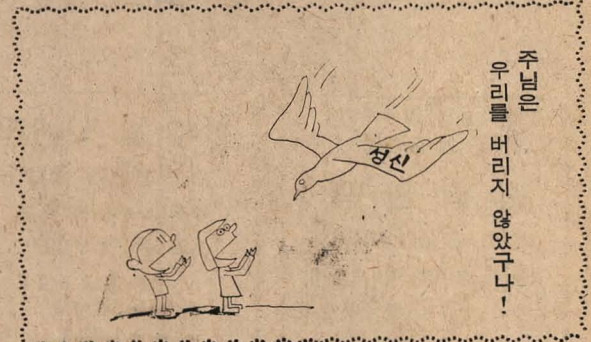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이 아니면 그 아쉬움과 아픔을 알지 못한다. 손때가 묻은 조그마한 호두알 하나를 잃어도 속이 좋지 못한 것이다. 그 차원을 넘어서 가치있는 무엇을 잃었을 때에는 두근두근 마음이 아픈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은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이다. 하느님 차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신(分身)인지라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다.

이 5월은 자식과 부모, 제자와 스승을 기억하게 하는 때이다. 아무리 다해도 부족할만 남은, 자신의 모자람을 탓하는 때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하물며 어이없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을 누가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있겠는가? 이 5월에, 어버이날이 있는 5월에 누가 그런 부모를 위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무도 없다. 근원적인 치료가 없으셔서 그 누구도 그들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다.

일찍이 예수의 탄생이 정치적인 사건으로 몰려 어린이들이 무고한 죽음을 당했다. 이미 이 사건은 놀라운 섭리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다. 인간적인 쓰라림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래도 새로운 약속을 하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는 읽는 것이다.

나 야훼가 말한다./라마에서 통곡소리가 들린다./애절한 울음소리가 들린다./라엘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구나./그 눈앞에 아이들이 없어/위로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가지 않는구나./이 야훼의 말을 들어라./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거두어라./애매운 보람이 있어/자식들이 적국에서 돌아오리라./이는 내 말이다, 어김이 없다./밝은 앞날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내가 분명히 말한다./너의 자식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리라.(예레미야 31장 15절 -17절)

숲 정 이 산책



주님의 우리를 버리지 않았구나!

□ 교리 해설

성령(聖靈)

성지순례를 마치고

이 바 오 로

성부·성자·성령은 그분들이 하시는 일로써 우리에게 알려지신다. 아버지는 창조하시고, 아드님은 구원하시며, 성령께서는 우리들 안에 살으시고 또한 우리를 아버지와 아드님께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성령을 표상하는 바람·혀·불·물에 대한 이미지는 성서에 그 내용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다. '영'(靈)이란 구약성경의 언어인 헤브레아 말로 '숨', '바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질적인 상징들은 모두 하느님의 영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생기는 효과를 가리킨다. 구약성서는 하느님의 은혜를 가리켜 이 말을 사용하고 있다. 즉 하느님께서 무에서부터 창조하는 힘을 하느님의 영이라는 말로 묘사한다. 특히 하느님의 영이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받는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두고 사용하였다. 우리는 전진성사의 특이성령의 특별한 은혜임도 알아야 한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을 일치시키는 힘, (판관 13, 25; 14, 6-17; 16, 14) 예언(사무엘 전 10, 6) 율법을 시행하는 장로들의 지혜도 하느님의 영이 인간에게 활동하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성령을 주신다.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신 후에 예수로부터 성령이 흘러나온다. 부활 주일 저녁에 예수께서는 사도들 위에 숨을 내쉬시므로써 명시적으로 성령을 주셨다.

초대 교회에는 성령을 받은 수많은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가장 크게 강조된 것은 '오순절'이라는 시나이 산의 계약을 기념하는 유대인 축일인 부활 후 50일째 날에 일어난 일이다. 이때 새로운 계약의 은혜가 사도들과 그들의 동료들에게 아주 뚜렷이 주어졌으니,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길 같은 혀가 보이고 황홀경에서 외국말을 하게 되었다(사도 2, 1 이하).

성령의 특별한 은혜-방언·예언·치유-는 초기시대보다 오늘날 현저히 드물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히 놓여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의 특은은 초대 교회의 그것과 형태를 달리 한다. 필요한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전대 예외적인 사목적력, 밝은 지혜, 현명한 통찰력, 뛰어난 예술 활동, 훌륭한 교육, 성인들의 탁월한 일생 등이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극히 '일상적인'—알기 쉽고, 교훈적이고, 유익하고, 봉사적인—일 안에, 그리스도교적 사랑 안에 현존하신다. 영의 업적에 대한 가장 분명한 묘사는 갈라디아 인들에게 보낸 바울로의 편지에 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기쁨·평화·인내· 친절· 선량· 신실· 온유· 절제입니다"(5, 22)

전례 중에 성령께 기도 드리는 경우는 드물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습은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성령께' 기도한다기 보다 '성령안에' 기도한다. 성령을 통하여 예수께서 현존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성신강림 때부터 대림절까지 조용히 하늘 나라를 묵상하는 긴 기간이 시작된다.

군산 팔마 본당 소속 수산 공소는 군산에서 약 12km 떨어진 평야지대로서 문규현 신부님을 모시고 공소 브레시디움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수산절을 기하여 전주에 있는 성지를 순례키로 하여 단원, 대상자, 앞으로 신자가 될 외교인 포함 40명이 성지순례를 떠났다. 첫 순례지 전주 중앙성당을 목표로 오소서 성신이여 성가로 시작하여 개회경, 로사리오 기도를 끝내니 벌써 중앙성당에 도착하였다. 문규현 신부님의 형님이신 문정현 신부님이 바쁘신 판공중에도 손수 성당으로 인도, 마칠 성당 안에는 손 신지(베드로) 복자의 유해가 모셔져 있었다. 우리가 성당에서 "장하다 복자여" 하고 성가를 부를 때 내 두 눈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다. 약 5분 후에 숲정이를 찾아 그곳 해상중·고등학교 지도신부님으로부터 숲정이가 이조시대 사형장이었다는 것과 이곳에서 치명하신 복자의 치명 내역을 자세히 들었다. 다시 복자 성당에 가니 권영균 신부님께서 즐겨 맞으신다. 복자 이명서(베드로)의 유해와 세 분 신부님의 머리카라, 박해 당시의 도구들이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신체를 썩 포에 예수님의 형상이 박힌 사진을 보았다. 다시 중바위로 향했다. 도중에서 버스를 내려 도보로 약 20분간을 오르니 전주시내가 한눈에 보였다. 마지막 계곡을 오르니 선명한 십자가가 눈에 띄었고 바위 모퉁이를 돌아서니 아름답고 거룩한 동정 부부 이누갈다와 유요한 외 6분의 유해를 모신 묘소가 있었다. 마칠 묘지에 가보니 오기순 신부님께서 73세인데 매일 이곳에 기도하시러 오신다며 맞으신다. 우연히도 신부님을 만나 육시형 치명과 형을 집행하기 전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배교하면 주마고 또 재산과 명예도 전부 물려주마고 해도 "나는 지존하신 천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성호경을 굶는 신자... 과연 이런 고초가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지? 그곳에서 까메나를 바치고 오신부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돌아오면서 뉘우치고 결심했다.

나는 일년이면 수차례 걸쳐 국내 관광을 다녔다. 국내 관광이라면 사할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왜 우리들의 신조께서 피를 흘리면서 죽기까지 한 성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슬과 세속적인 관광만 하였던 말인가 우리 공소 브레시디움 단원들은 반성하고 각성하여 다음 해에는 미리내나 솔피 또는 고산 천호공소 등 교회 발상지를 순례해야겠다고 모두 한 마디씩 한다. 우리 단원들 중에는 전주란 말만 들었지 가 본 사람은 별로 없다. (특히 여단원) 정말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나는 부러운 치명자의 후손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굳게 맹세하면서 이 글을 쓴다.

(군산 팔마본당 수산공소 계약의 퀘 pr단장)

해의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 6 6 6 ~ 8
대한항공 국내의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전주 꽃 직매장
진선미 꽃집
꽃꽂이 수강생 모집
조화(종이꽃) 대여
☎ ② 2 6 2 8
이 마리아(명자)
범 띠도(덕배)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롬체가구도 KS마크 획득
한 일 씩 크
전북 총대리점
• 주방설계 • 씩크대수리
• 가스렌지 • 주방용기
전주 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④0841 야간 ④9874
박 안 당 (윤규)

범모약국
가톨릭 센터 동편
☎ ③ 5 3 1 9
김 영 춘(아오스당)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이 상호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 빈첸시오 협의회 대표자 모임

지난 14일 전주교구 각 빈첸시오 협의회 대표자 첫 모임을 열고 그동안의 ①활동 현황, ②회원들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육 및 피정 계획, ③조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 모색, ④교구 이사회 결정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상의했다.

또한 사목국에서는 이 운동이 교구 내 모든 본당의 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우선 소개 팸플릿을 제작하기로 했다.

82년 활동 상황을 보면, ①전동 협의회는 한들 천주교회 공소 어린이 교리교육을 맡아 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봉헌금 2백여만원을 불우형제들과 나누었다. ②본 협의회는 본당 부녀회 레지오 단원들과 함께 "빈첸시오의 집"을 운영하며 얻는 이득금 중 2천여만원을 불우 이웃들에게 회사했고 이외에도 노력봉사, 의류, 생활품 등을 나누었다.

□ 하기 산간학교 안내

매년 본당별로 실시해 오던 하기수련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게 치르기 위해 하기 산간학교를 7월 27일~30일(3박 4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관심있는 본당은 교육국으로 신청, 문의 바람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 마니피캣 합창단 순회 음악미사

대학생 연합회 산하 기구인 마니피캣 합창단에서는 각 본당 성가대의 활성화와 성가 보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순회 음악미사를 가집니다.

기간 : 5월 15일~6월 26일(매주 일요일) 인원 : 25명
대상 : 전주교구 각 지구별 본당 주최 : 대학생 연합회

뜻이 있으신 본당은 대학생 연합회(교육국)로 연락바라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군중후원회 성지순례 및 회원 단합대회

일시 : 6월 5일 10시, 가톨릭 센터에서 출발 순례지 : 치명 복자 순례지 묘소

지참물 : 미사준비(성경, 성가책, 묵주), 자차 도시락 지참, 회비-2천원

미사 주례 : 박 중신 신부(교육국장) 레크레이션 지도 : 김 치영 봉사부장

□ 설악동 성당 미사안내(국립공원 설악산)

춘천교구 내 설악성당은 주민 사목보다 관광 사목을 목적으로 설립된 본당입니다. 여행객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주일미사 : 아침 6시30분(5월, 7월, 8월, 10월만 있음), 낮 10시 30분, 저녁 8시

※ 토요일 특전미사도 있음

평 일 : 저녁 8시, 고백성사 : 모든 미사 30분 전 있음

이밖에도 관광 교우들을 위해 모든 성무를 집행해 드립니다. (단체미사, 특별미사, 영적 상담) 또한 교우들이 운영하는 숙박시설도 안내해 드립니다. 성당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설악 성당 주임 맹 석철 신부 전화(속초 ① 7625)—

요심이(511) 김병오



□ 특수자연시 컴퓨터를 국내 최초로 시설

밤 고 눈을 편 하 고 보호하는 시원하게

보안당 센터

특수안경, 표시없는 다초점 조절렌즈, 가벼운 렌즈, 얇은 렌즈를 질에서나 값에서나 정성을 다해드립니다.

구 역전 오거리
전화 ③ 3 0 3 2
윤(베드로) 중순

결 (축) 혼

강두열씨 3남 강호기
유임페 여자 3녀 박경화
(마리아)

일시 : 83년 5월 29일 12시
장소 : 전 동 성 당

□ 회소식

독사범 물린 사람
백발백중(五代袞)

전문치료 단시간 완쾌
연락처-전주시 전미동 1가 474번지
전당리 시내버스 중점
정미소 뒷집
전화 5-3544
송 준의(발라바)

건 강 식 품

※ 각종 암·간질환·위장병·심장병 등

제조처 : 왜관 수도원 농장 자연식품 연구소

☎ ②-2625~6

공급소 : 전북 전주시 전동 구 성모병원 3층 309호

☎ 72-3925 ②-8091

김 희 진(미 카 엘)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 ☆ **축! 경진**: 22일 - 중앙성당
- 1. **혼인문제 법원 개설**: 23일 (월) 오전 10시 ~ 오후 4시, 장소 - 교구청
- 2. **제2차 중·고 지도자 연수회**: 28일 오후 3시 ~ 29일 오후 5시, 가톨릭 센터, 회비 - 4천원, 문의 - 교구교육
- 3. **제3차 레지오 연수회**: 6월 6일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50분, 대상 - 초·중·고 레지오단원, 참가비 - 2천원
- 4. **4지구 주일학교 성가경연대회 및 어린이 대잔치**: 22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성심여고 강당
- 5. **4지구 교리교사 월례회**: 25일 오후 6시, 장소 - 서학동 성당
- 6. **고산 비행장 근무자 (한국인) 성지순례**: 30일 오전 7시 30분, 집결 - 구 한일은행과 팔마성당 앞 순례지 - 전주 치명자산과 고산 천호공소
- 축! **영명**: 23일 성디디에 - 지 정환 신부님 (벨기에 휴양중)

(중앙)

전화 01711~3

주임 신부 문 정 현
수석보좌 박 보화 안 한 훈
사도 회장 김 인 철

- 1. **성모의 밤**: 28일 오후 7시 30분, 성모상 앞에서
- 2. **축! 전입**: 이번주 전입자 - 박애정 (크리스티나), 변영분 (로사리아), 문영수 (안젤라) 가족
- 3. **성전 신축헌금 심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1만원 - 손순자·배정자·임공진·박연숙·김정옥·유만례
·이미경·김종환·김미자·장은영·서희석·차경연·배은정·양옥남·황옥자·백나미·이선자·정금순·김근희·안연순·소병일·신은희·김혜연·이순옥·김인애·정민화·조형애·채말녀·김영례·이진주·김동진·김행기·유소년·화일순·이판례·김신자·홍영기·이지순
3만원 - 김분인·김재홍·김복순·김영옥·서석진·권오숙
·이남순·김분순·김은자·박소녀·이정숙·김득주·김결순·권정순·최순례·신세균·조정희·나경자·이순이·박봉대·이인숙·이소진·임병주·이선라·양정길·김기순·정은숙·서정기·이상준·정진수·최일수·이정완·김종복·김요현·조재원·김순자·교양희·전영진
- **지난주 봉헌금**: 858,256원 **교무금**: 481,000원
감사헌금: 이병숙 5,000원

(노총동)

신 부 0969 수 사 0732

주임 신부 김 용 태
보좌 신부 나 춘 성
사도 회장 이 흥 재

- 1. **금주의 구역회합**: 23일 저녁 8시
우아동 - 1·2·3구역, 중노2가 - 9구역, 남노 - 4구역
- 2. **각 구역의 구역장 명단 발표**: (중노2가 중에서)
제1구역: 구역장 - 장기수씨, 부구역장 - 최영록씨
제2구역: 구역장 - 김순영씨, 부구역장 - 김구례씨
제3구역: 구역장 - 한승희씨, 부구역장 - 서정남씨
제4구역: 구역장 - 양기식씨, 부구역장 - 김종배씨
제5구역: 구역장 - 장옥남씨, 부구역장 - 배진희씨
- 3. **교무금 납부의 날**: 오늘은 교무금 납부의 날
- 4. **성전 청소담당**: 증거자의 모후팀, 23일 오전 10시
- 5. **아파트 소식**
☆ **가톨릭 성서모임**: 일시 - 26일 오전 10시, 인후동 성당내, 준비물 - 신구약 합본성서·노트·장세기 문제집·교제비
☆ **성요셉회 월례회**: 일시 - 28일, 장소 - 성당내
☆ **주일학교 소풍**: 일시 - 29일, 장소 - 다리리
- **지난주 봉헌금**: 333,910원 **교무금**: 94,500원
아파트: 52,300원 **아파트**: 6,000원

(덕진)

신부 (3) 2182 주임 신부 김 봉 회
전화 수녀 (72) 1222 보좌 신부 정 양 회
사도 회장 양 상 철

- 1. **L.M. 아치에스 (봉헌사열식) 행사**: 오늘 오후 2시
- 2. **주일학교 (4지구) 성가경연대회**: 오늘 성심학교 강당
- 3. **성모의 밤 행사**: 28일 저녁 8시
- 4. **다음주 모임**: 진부회 월례회 - 29일 미사후
청년연합회 야외 친교미사 - 전지산
- 5. **예비자 교리안내**: 주일 - 공식미사 후, 화요일 - 오전 10시, 수요일 - 저녁 7시 30분, 목요일 - 저녁 8시
- 6. **교무금**: 아직도 교무금 수입 많으신분 정성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423,020원 **교무금**: 567,500원

(복자)

전화 05238

주임 신부 권 영 균
사도 회장 조 성 호

- 1. **옥의행사**: 오늘 안행사에서
- 2. **성모의 밤 행사**: 29일 저녁 8시 미사후
- 3. **사도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부녀회·빈첸시오회 대표 참석

- 4. **봉헌금**: 미수 없도록 완납 바랍니다
- 5. **미사시간 엄수**: 10분전에 와서 준비하세요
- 6. **주일학교 어린이 성가경연대회**: 오늘 성심학교에서 도시락·신주머니·미사준비
- 7. **가정방문**: 24일 지난번에 빠진분과 이사오신 분
- 8. **수녀원 신축헌금**: 빈첸시오회 (50만원), 익명 (30만원), 익명 (20만원)
- 9. **금주전례**: 해설 - 최정순, 독서 - ①유기순 ②신재마 봉헌 - 독서하신 분
차주전례: 해설 - 김인식, 독서 - ①김성원 ②고희구 봉헌 - 독서하신 분
- **지난주 봉헌금**: 487,580원

(서학동)

전화 02276

주임 신부 김 병 환
사도 회장 한 철 수

- 1. **사제양성후원회**: 회원을 모집합니다 회비 - 1년 5만원
- 2. **미사시간 변경**: 새벽미사 6시에서 5시 30분으로 저녁미사 7시 30분에서 8시로
- 3. **성모의 밤 행사**: 31일, 1부 미사 - 8시, 2부 성모의 밤 행사 - 8시 30분, 지침물 (목주, 양초, 기도서) 각 단체에서 꽃다발, 화분, 기도문 준비, 유인물 참조
- 4. **수녀님 이동**: 박웬마 수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5. **차주전례**: 독서 - ①박형식 ②신영창 신자들의 기도 - 박장춘·유순분·김나섭
- **지난주 봉헌금**: 243,280원 **교무금**: 166,000원

(숲정미)

전화 07366 주임 신부 김 종 길
수·유 09567 사도 회장 김 수 겸

- 1. **성지순례**: 6월 6일 6시 출발, 배론, 6천원, (도시락)
- 2. **성모회**: 오늘 공식미사 후
- 3. **성모의 밤**: 28일 8시 30분 (초 봉헌) 초는 사무실에서
- 4. **금주전례**: 해설 - 이귀례, 독서 - 홍성조·김형철
기도 - 노재두·유희자
차주전례: 해설 - 이귀례, 독서 - 정주복·이원길
기도 - 김남곤·강삼
- **지난주 봉헌금**: 133,920원 **교무금**: 182,600원

(전동)

신부 06208 주임 신부 김 병 엽
사도 03222 보좌 신부 박 찬 길
수녀 08347 사도 회장 이 종 두

- 1. **축! 영세**: 영세식, 22일 공식미사
- 2. **경진 (29일)**: 집중교리, 23~28일 저녁미사 후
- 3. **성모의 밤**: 28일 20시 - 초·꽃 준비
- 4. **주일학교 성모의 밤**: 30일 저녁미사 후
- 5. **주일학교 성가대회**: 오늘 성심학교, 많은 참석 바람
- 6. **글라라 형제회**: 다음주 오후 1시 30분
- 7. **축하!**: 시종적 - 양경배학사, 독서적 - 김태환·이사정
- 8. **차주전례**
아침미사: 해설 - 박종주, 독서 - ①김동원 ②김창선
공식미사: 해설 - 양현홍, 독서 - ①이영희 ②신일균
저녁미사: 해설 - 경양수, 독서 - ①김희진 ②정동희
- **지난주 봉헌금**: 658,230원 **교무금**: 249,000원

(파티마)

신부 09115 주임 신부 김 영 빌
수녀 04804 사도회장 함 회 상

- 1. **어린이 성가경연대회**: 오늘 오전 9시, 성심여고 강당 부모님들의 협조 바람
- 2. **어린이미사**: 없음: 3시 30분 성가경연대회 관계로
- 3. **유아세례**: 다음주 오후 3시 30분 미사후
- 4. **천호 치명자모지 성지순례**: 회비 - 3천, 도시락 지침
- 5. **오늘은 성심강림 대축일**: 우리도 레지오에 가입하여 포교에 임합니다
- 6. **어린이 첫 영세례 교리**: 6월 3일 - 17일까지 오후 5시 30분 ~ 6시 30분
- **지난주 봉헌금**: 182,110원 **교무금**: 50,000원